

강진에 정착한 인천출신 4가족 18명의 설맞이

“농사짓고 마을 일 돕고 ... 전라도사람으로 행복해요”

“남도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묘한 매력 있어요. 가족과 친구들 모두 행복합니다.”

강진군 칠량면 단월리에는 ‘남도 마니아’로 통하는 귀농인들이 있다. 한 가족처럼 지내는 이종근(47)·박봉서(47)·방재철(48)·김영광(44)씨가 그 주인공들. 인천에 살던 이들은 지난 2009년 여름부터 아무 연고도 없는 강진으로 삶의 터를 옮겼다. 후배인 김씨를 제외하고 모두 ‘절친’이다.

귀농정책 강진군이 최고

가장 먼저 강진에 동지를 튼 귀농인은 이씨. 그는 인천에서 유통업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았지만 지난 2009년 휴연 짐을 싸 강진으로 이사했다. 전라도를 예찬하던 지인의 소개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일이었다.

강진군의 귀농지원자금 3000만원에 사재를 보태 3967㎡(1200평)의 장미재배시설을 사들였다. 농사경험이 전무했던 그는 강진군의 조언을 받아 농사일로 장미를 선택했다.

박씨는 경기도 평택에서 양식업으로 돈을 벌었지만 삶에 만족하지 못하던 터에 친구 덕분 강진에서 터를 잡았다.

그해 11월 친구와 비슷한 규모의 재배시설을 마련했다. 고향은 강진이지만 어렵게 얻은 인천으로 이주한 방식이 친구들을 따라왔고, 이씨의 농장에 인턴으로 취업했던 김씨는 친구들의 고고 후배로, 마지막으로 합



강진군 칠량면 단월리에 동지를 튼 인천 출신 귀농 가족이 장미재배 하우스에서 출하를 앞둔 장미를 한아름 안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봉서씨 부부와 이종근·방재철·김영광·서원영씨. /강진=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친구·선후배 사이 ... 장미 재배하며 즐거운 농촌생활

류했다.

4가족의 가족 수만 18명. 나날이 인구 수가 줄어가는 농촌에 이 정도면 대규모 이주다.

이씨는 “귀농정책을 실시하는 지자체들

을 꼼꼼히 비교했는데, 강진군이 제일 잘 돼 있더라”며 “귀농을 위한 대출과 집 문제 해결 등 세세한 부분까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씨는 “장미 재배를 선택한 후 1주일에

한 번씩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해주고, 비료를 지원해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조언해 줘서 1년 남짓한 기간에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용감(?)했던 귀농이지만, 일이 잡히고 보

니 생활도 편해졌다. 이씨는 “가끔 이해하기 어려운 동네 주민들의 사투리만 빼면 어르신들이 워낙 친절해서 동네 청년회의 운영 위원 감투까지 썼다”고 귀띔했다. 이씨의 부인인 서원영(45)씨도 동네 부녀회장을 맡았다. 4가족이 유독 친하다 보니 주민들이 ‘같이 놀자’고 말을 건네는 것도 이제는 낯설지 않다.

떠날 수 없는 제2의 고향

겨울은 졸업 시즌을 앞두고 장미재배 농가가 가장 바쁜 시기다. 이씨는 “강진 장미농가의 겨울에는 부모님도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이제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에게 코 앞에 다가온 설은 의미가 남다르다. 지난해 이곳에서 첫 설을 보냈지만, 이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정성없이 보낼 수밖에 없었으나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된 이번 설은 조금 더 풍요롭고 싶다.

벌써 동네 주민들이 설날 떡국을 같이 먹자는 제안을 해왔다. 주민들과 함께 설 아침을 보낸 후 마량면 바닷가로 오랜만에 4가족이 나들이를 할 참이다.

이씨는 “시간이 흐를수록 편하다. 강진은 이제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고향이 됐다”고 환하게 웃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i@

나원침 (8236) 김장동



이만의 환경부장관 부인 혼외자녀 주장 공갈 고소

민사소송이 진행돼 온 이만의 환경부 장관의 혼외자녀 논란이 고소전으로 번졌다. 지난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장관의 부인 석모씨는 지난 25일 이 장관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낸 A씨의 모친을 공갈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고소했다. 석씨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이 5억 원을 주지 않으면 과거의 일을 문제 삼겠다”며 남편과 나를 함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970년대 어머니와 이 장관이 교제해 나를 낳았다”며 2008년 법원에 친자확인 소송을 냈고, 이 장관은 법원이 요청한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아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 장관은 소송 사실이 알려지자 “20대 총각 시절 부적절한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혼외자녀는 없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연합뉴스

무서운 10대 출동 경찰까지 폭행

○...폭행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잇따라 폭행한 ‘무서운’ 10대가 경찰서행.

○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모(18·광주 광산구 송정동)군은 지난 31일 밤 8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주유소 앞에서 손으로 서부서 모 지구대 소속 정모(49)경사를 3차례 밀치고, 1시간 뒤 지구대에 도착해서도 유모(33)순경의 정강이를 2차례 걷어차다.

○경찰조사 결과 이군은 이날 주유소 앞에서 행인과 시비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화끈하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에서 “경찰관들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화가 났다”고 진술.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폐업 모텔 화재 ... 홀로 살던 30대 사망

광주 중흥동서 ... 노숙자 등 출입 방화 가능성도

5년 전 폐업한 광주 구도심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나 모텔 객실에서 생활하던 30대가 사망했다.

1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0시10분께 광주시 북구 중흥동 현대백화점 인근 한 모텔에서 불이 난 것을 행인 정모(24)씨가 발견, 119에 신고했다.

이 불로 모텔 2층 방안에 있던 구모(38)씨가 숨지고, 객실 내부 16.5㎡(약 5평)가 불에 타 300여만원(소방

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구씨가 숨진 방에서는 빈 소주병 20여개와 담배꽂초, 옷가지 등이 발견됐다.

경찰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구씨는 2004년께 보증금 1000만 원을 내고 이 모텔에 입주했다. 이후 구씨는 2006년 이 모텔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 건물에서 계속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연기가 참대부터 시작된 점

과 다른 곳보다 참대가 더 많이 탄 점 등으로 미뤄 구씨가 잠을 자던 참대에 서부터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구씨가 평소 술을 즐겨 마셨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구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다 번을 당한 것이 아닌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 모텔이 폐업 후 문이 열려 있어 노숙자 등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탈살 뒤 방화 등 다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인터넷 메시저로 거짓정보 유포 주가조작

전 증권사 직원 등 7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이천세 부장검사)는 1일 인터넷 메신저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전 증권사 직원 이모(27)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모(25)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고등학교 3학년인 김모(18)군은 보호관찰소의 선도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고, 주가조작 브로커로 활동하다 달아난 목포의 폭력조직원 최모(30)씨는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작년 2~9월 증권가에서 널리 사용되는 미쓰리(Mi3) 메신저 등으로 특정 기업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거짓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워 400만~1억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가총액과 유통주식수가 적어 소규모 자금으로 쉽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해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미쓰리나 포털·증권사이트 게시판 등에 거짓 정보를 퍼뜨려 매수를 권유하고서 주가가

상승할 즈음 팔아치우는 수법을 썼다.

특히 기존의 기사내용에 투자자를 현혹하는 허위 내용을 교묘히 끼워넣은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고, 인터넷 언론사에서 이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면 다시 게시판에 퍼날라 거짓 정보를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피해를 키웠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여러 개의 인터넷 주식카페를 개설해 회원들을 상대로 투자상담비를 받으면서 주가조작 대상 종목을 매수하도록 유도해 범행의 희생양으로 삼는 괴롭힌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 대상으로 삼은 코스닥 상장사가 90여개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제로는 200개가 넘는 업체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 “범칙금 냈으면 다른 처벌 안돼”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일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염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경범죄처벌법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범칙금을 낸 해당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되면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염씨는 ‘2009년 10월 13일 지구대에서 음주소란했다’는 이유로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냈는데, 당시 범칙 행위와 이번 공사사실은 범행장소와 범행일시 거의 같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염씨는 2009년 10월 서울의 한 술집에서 열 좌석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전북 버스노조·사측 충돌

파업 중인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버스노조 조합원들이 1일 오전 전주시 금암동 전북고속 사무실과 전주시의 버스터미널에 진입하려다가 이를 막는 사측과 충돌했다.

민주노총 노조원 6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전북고속 사무실과 바로 옆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 진입을 시도하면서 벽돌 등을 던져 유리창 수 십장이 깨졌다. 이에 대응해 사측은 고동한 용역들을 통해 분발소화기를 뿌리며 노조원 진입을 저지했다. /전북취재본부=김용철기자 k0765@

야구공 절도범은 고교생

무등야구장서 2000개 훔쳐 인터넷 판매

광주 무등야구장 ‘야구공 실종 사건’(광주일보 1월 31일 6면)은 못된 고교생들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 북부경찰은 1일 KIA 타이거즈 연습용 야구공 수천개를 훔

친 혐의(특수절도)로 이모(17·고2)군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 등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북구 임동 무등경기장 야구장 창

고에 들어가 6차례에 걸쳐 야구공 2000개(16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군 등은 도난 사건이 발생해 구단 측이 전장을 막으려고 설치한 패널을 드라이버로 뜯고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군 등은 훔친 야구공을 인터넷 중고사이트를 통해 1개에 2000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편입할 사람 김영에 다 모여라! 대학편입 1학년부터 시작하자! 편입은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상위권 대학/ 전남대편입 전문강좌/ 편입영어, 편입수학, TEPS

김영편입학원

www.kimyoung.co.kr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

강원 일